소제, 천국행과 지옥행의 갈림길

(레2:1~16)

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제, 천국행과 지옥행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소제, 천국행과 지옥행의 갈림길'
번제의 말씀을 해주신 뒤에 연이어서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언 듯 뒤에 나오는 화목제나 속죄제가 더 비중이 큰 제사 같지 않습니까? 번제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제사 전체의 의미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고 비중이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 순서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볼 때, 화목제나 속죄제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나 숫염소 숫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보다 곡식을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비중이 더 클 것 같지가 않은데 번제에 뒤따라서 나오는 이유는 소제가 천국행과 지옥행을 갈라놓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그냥 지옥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천국행과 지옥행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 안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생각하셔서 '이상하다,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비록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고 절름거리고 믿음에서 쓰러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설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의 내용인데 어떻게 선민들 중에서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교리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fact)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 다 선민입니다. 육체적으로 혈육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땅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조차도 남자 성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행을 밟지를 못합니다. 같은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복지행이 있고 광야 멸절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이들 모두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홍해의 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성막이 주어졌고 번제가 주어졌는데 이들이 갈리는 이유는, 번제의 삶에 뒤따라 소제가 뜻하는 의미인 소제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제의 삶은 번제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를 지속시킨다는 의미로 번제를 통해 내게 주어진 변화와 은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소제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소제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만 하고 완전히 남남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갈라놓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행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고, 더군다나 선민의 그룹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이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소제적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머릿속으로 성막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성막의 본체가 선민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의 지성소가 있고 마음의 성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성막의 그림을 그려보는데 지성소의 법궤의 위치에 서서 보면 성소의 입구가 동쪽으로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자리에서 동쪽을 향해 서게 되면 지성소 휘장이 있고 바로 뒤에 선민들의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편으로 일곱 가지로 돼 있는 등대가 있고 왼쪽으로 진설병 떡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출입문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뒤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법궤와 등대와 진설병 떡 상이 분향단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떡 상과 불을 켜는 등대는 같은 선상에 있고 그 앞쪽으로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쪽으로 지성소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으로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고 말씀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으로 모시고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둔 그 존재가 생명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힘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로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첫 번째로 사랑을 하는 그 자리가 상징적으로 성막인데 일 년에 대제사장도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만

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로 마음의 지성소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더러워 졌습니다. 청결이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인데, 이를 테면 나인 성 과부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독자를 들여놨습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는 이 독자가 생명으로 과부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30년 동안 사업을 멋지게 일구어 놓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고 인생의 보람이고 의미입니다. 이 분에게는 30년 동안 이룬 사업체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이고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 내 인격을 태워서 죽여 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가죽은 벗겨내고 머리와 몸통은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보면 또다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천국행 지옥행이 갈라집니다.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왔다면 배부른 이유, 기쁨의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순간적으로나마 돈으로 바뀌어서 '내가 내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3년 뒤에는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선민들 중에서.

지옥행인 이유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생명인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 나인성 과부에겐 독자가 생명이고, 30년 사업을 이룬 사장님에겐 사업체가 생명이고,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메시 같은 축구선수에게는 그의 발이 생명이고 조수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생명을 넣고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인 생명을 찾던 자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 생명을 찾을 수 없이 영원히 사는데 바로 지옥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나인 성 과부와 같은 처지의 외아들,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메시 같은 세계 제일의 축구선수가 무릎에 암이 생겨서 무릎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상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조수미 씨 같은 그런 멋진 가수가 성대에 암이 생겨서 성대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 펄펄 끓는 물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서로 뜨겁게 연애하는 중에 애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부모들에 의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때 이 남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 이 심정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지옥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을 들여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 마음에 돈을 들여놨다면 돈의 속성이 육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돈만을 살아야 될 이유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내 머리 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가고 친구들 만나지만 남편을 잊고 삽니까? 내가 남편 있는 자요, 결혼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사업을 들여놓게 되면 하나님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버리는 것이고 소제는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소제로 나타나는데 곡식을 가루로 갈아서 드립니다. 마6:34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시간들을 자르시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내일을 바라보고 모레를 바라보고 일 년 뒤를 바라보고 십 년 뒤를 바라보고 노후를 바라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반드시, 반드시 마음에서 지금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꾸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위로 향해 바라보면 이사야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지어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가더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이 지금 내 위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한 내일을 볼 수 없고 모레를 볼 수 없고 일 년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업장에서 생긴 문제보다 먼저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앞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의 삶으로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시간단위로 분단위로 초단위로 끊어져서 가루처럼 모든 시간 시간마다 내 마음은 위를 향한다고 하는 의미가 소제에 담겨있는 것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과 9절에 나옵니다. ‘기념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기억하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13절에는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루에 소금을 같이 뿌리는데 소금이 녹아서 모든 가루에 다 들어갑니다. ‘가루’란 내 시간을 하루단위로 시간단위로 분단위로 초단위로 끊어서 위를 바라볼 것이며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시간 시간마다 소금의 맛이 가루에 들어가듯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제가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되는 번제가 소제를 통해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향품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화덕에 구어 떡을 만들든 철판에 구어 만들든지 물에 삶아서 만들든지 떡을 만드는데,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이 말은 나의 3년 뒤의 일 지금부터 3년이란 단위로 시간의 뭉텅이가 만들어집니다. 5년 뒤의 일 아니면 내일 일로 시간의 뭉텅이가 만들어 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안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는 내일을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내일의 염려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변화는 있지만 근본내용은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 관통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관통되고 있는데 언약의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고 하십니다. '완전 하라'는 말은 천국행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이라고 이름 하는 자들 중에서 광야멸절행이 있고 가나안복지행이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진짜 참 선민이 있고 교회의 조직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번제의 삶이 이어지고 그 뒤를 따라 소제의 삶이 이어져서 매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려고 하는 그리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I miss you. I miss 하나님'라고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끝나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황이고 총회장님이고 할 것 없이 지옥행으로 결정짓는데 이건 결혼하고 남남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몇 백 년 뒤까지도 예언을 하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자가 예언했다면 1,500년 뒤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내 머리위에 있는 하늘위에 계십니다. 예언자들이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앗수르에 망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풍요와 다산이 주어지는 미래에 꿈을 두고 살다가는 망하므로 너희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 위를 향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도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입을 열어 말을 하다 보니 그게 미래의 내용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미래가 없어야 정상이고 참 선민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지금은 언제나 위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발짝 뛰어야 하는 바로 미래 2초 뒤의 미래, 3초 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1년 뒤의 미래, 2년 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

는 것이고 이게 바로 소제의 삶으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가루가 됩니다.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2년 뒤에 뭘 하고, 3년 뒤에 뭘 해야 한다고 하면 시간이 뭉텅이가 되는 것이므로 벌써 이 땅에서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선상에서 나의 미래를 보고 내 과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로 드려져서 태워졌으면 과거를 볼 필요가 없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앞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앞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시선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봅니다. 내 미래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간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며 걷는 것이고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가능합니다. 구름을 따라 간다는 것이 위를 보는 것이지요. 위를 보면서 이 수평선상에서 발을 옮기고 땅을 향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구름위의 하나님을 보면서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소제의 삶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매순간마다 하늘을 앙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대로 내 시선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크레도'는 '심장을 드린다'는 뜻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내 마음의 시선도 그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제의 삶입니다. 항상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도 병이 낫는 미래를 향하지 않고 사업이 잘되는 미래를 향하지 않고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 하늘에 가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마음의 지성소에는 사업의 잘되는 미래를 집어넣고 자식의 성공적 미래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은 살아야 될 이유를 땅만 보고 찾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아야 될 이유 없이 영원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마음에 가장 깊숙이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온 몸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인 성 과부의 처지에서 외아들이 죽었다면 이 과부의 마음과 몸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땅에 있었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은혜로 내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나도 인격인데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의 지성소는 금고가 아닙니다. 금고는 소중한 물건을 집어넣고 문을 잠그면 그냥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금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시므로 살아계신 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업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 사업이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자식도 건강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그것에 마음을 주면 마음의 지성소에 그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다가 육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옥입니다. 성경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지옥행을 피해야 하지요. 선민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룹 안에 참 선민과 가짜 선민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소제적 마음가짐으로 번제적 결과를 유지하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참 선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번제를 통하여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을 만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함을 통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계심이 매순간마다 지속되는 참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